

## 푸른 한울 아래 독도

접 수 번 호	기재하지 마시오
학 교 명	하나고등학교
동아리(팀)명	한울

## 1. 우리 동아리(팀) 소개하기

### ○ 동아리(팀)명 소개

‘한울’은 크고 바른 이상과 뜻을 안고 있는 큰, 온 세상이라는 뜻이며, 크고 바르다는 뜻의 ‘한’과 우리의 줄임말 ‘울’을 결합한 단어입니다. ‘한울’은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독도 사랑을 실천하자는 우리 팀의 포부와 이상을 담고 있음과 동시에 독도는 우리나라의 터전이며, 우리 조상이 지켜낸 소중한 영토의 일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 ○ 동아리(팀) 구성원 ※ 동아리(팀) 구성원 변경 시 변경 전·후 명시하여 표기할 것

순번	성명	학년	동아리(팀) 내 역할
1	김리준	2	영상 매체 및 시각 자료 제작
2	김서현	2	SNS 및 인터넷 홍보 활동 계획
3	박지연	2	각종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4	이재혁	2	오프라인 방문 및 홍보 활동 계획

## 2. 독도체험 활동 소개하기

### ○ 활동 주제 : 우리 땅, 독도에 관한 올바른 정보 파악 및 이의 중요성 알리기

- 주제 선정 이유 :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양한 자원, 그리고 지리적인 장점과 동시에 독도가 우리나라 영유권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릴 수 있는 포괄적인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 ○ 활동 기간 : 2018.05.02. - 2018.08.09.

○ **추진 방법** :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지어 활동을 추진하였다. 교내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진행했던 활동은 주로 SNS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직접적 홍보 효과를 요했던 활동은 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다.

○ **활동 내용 : 체험 보고서 별도 첨부**

날 짜	독도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5/19	독도체험관 방문	독도체험관	체험 보고서 별첨
5/21	사이트 제작	학교	
5/25~6/7	SNS 손글씨 캠페인	SNS	
6/13	카드 뉴스 제작	학교	
6/25~6/27	팸플렛 제작 및 교내 홍보 활동	학교	
7/1	홍보 영상물 제작	학교	<a href="https://youtu.be/ra1t739B14A">https://youtu.be/ra1t739B14A</a> <a href="https://youtu.be/BHFSXU1_Oz0">https://youtu.be/BHFSXU1_Oz0</a>
7/14	기사 작성	학교	체험보고서 별첨 ※ 2018월 9월 중 교내지에 게시 예정
7/29	홍보 포스터 제작	학교	체험보고서 별첨
8/5	굿즈 제작 및 주문	집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활동 보고서	보고서	독도체험 발표대회 보고서
2	체험 보고서	보고서	독도체험 발표대회 체험 상세내용 첨부

### 3. 성과 및 향후 계획

#### ○ 활동 성과

1. 페이스북 손글씨 캠페인 : 페이스북에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라는 문구의 손글씨 사진을 게시하는 캠페인을 활성화하였음.
2. 카드뉴스 : ‘그들이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라는 큰 메시지 아래에서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음.
3. 팸플렛 : 카드뉴스를 바탕으로 제작 후 배부하여 교내에서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음.
4. UCC 제작 : 독도체험관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효과적인 공유의 목적을 두어 한국어, 영어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하였음.
5. 굿즈 제작 : 독도와 관련된 실용적인 ‘펜’ 굿즈를 제작하여 실생활 속에서 독도의 의미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였음.
6. 기사 작성 : 독도체험관 방문 후 전시관에 대한 설명 및 인터뷰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음.
7. 사이트 제작 : 팸플렛 등을 게시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작하여 독도 관련 콘텐츠를 홍보하는데 이용했음.
8. 독도 체험관 방문 :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설립한 독도체험관을 직접 방문하여 독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 향후 계획

1. 전문적으로 사이트 제작 및 디자인 후, 일반인들에게 독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매체로 발전시킴
2. 굿즈 판매 품목 다양화 및 펀드레이징 진행 후 독도 발전 기금 후원
3. 자체 제작 사이트에 독도 게임을 제작하여 독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라는 궁극적 목표를 이루고자 함. 일본 측 주장의 잘못된 점이나 독도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등을 제시해야 하는 퀴즈 형식의 배틀 게임을 제작할 예정임.
4. 손글씨 캠페인의 참여 계층 다양화.

5. 창작물 및 홍보 활동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대중화 계획.
6. 홍대와 경리단길에서 독도 인식 실태조사 진행 후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제작하여 향후 동아리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함
7.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동해는 '동해' 단독 표기, 혹은 '일본해'와 병기가 원칙이나,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경우가 지난 1년 동안 1658건에 달함. 이 중 시정률은 15%인 249건에 불과함. 따라서 우리는 이 활동을 하면서 잘못된 표기가 되어 있는 곳에 직접 문의 이메일을 넣어 시정을 요청할 것임.

#### 4. 독도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팀)원	느 낀 점
김리준	독도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영토이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공익광고, 책, 강의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왔던 말이다. 하지만 그 말을 진심으로 마음에 새기고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이번 독도 사랑 실천 100일 동안 독도가 환경적, 문화적으로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몸소 깨달았다. 독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도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지만,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 가족들 등 주변에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으로 시작했다. 특히 손글씨 캠페인은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활동이었다. 이번 대회 참가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독도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나와 같은 학생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 변화를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뜻깊은 경험이었다.
김서현	기자단으로 활동했을 당시에 독도에 관한 기사를 쓴 경험이 여럿 있다. 당시에는 초등학생이었고, 무지했기 때문에 그저 TV나 교과서에서 본 독도의 모습이 내가 알고 있던 전부였다. 아직도 1박 2일에서 독도를 수호하시는 경찰 분들에게 짜장면을 배달해 드리는 편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독도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24시간 독도를 경비하고 계신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다. 이번 대회는 내게 그런 나의 옛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릴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기회로 다가왔다.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독도 체험관에 갔을 때, 주니

	<p>어 도슨트들이 전시 해설을 해주었던 때인데, 우리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이 독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있었고 우리가 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해주어 '우리보다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독도에 대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또, 교내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 학생들에게 독도 이행을 포스트잇에 작성하도록 부탁했었는데, 친구들이 진지한 태도로 우리의 설명을 들은 후 이행을 작성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직접 친구들이 독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위를 넓히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 매우 뿌듯했다. 독도체험발표대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 너무 좋았다.</p>
박지연	<p>초등학교 2학년 때 노래 '독도는 우리 땅' 1절부터 5절까지의 가사를 전부 암기해 학급 친구들 앞에서 부른 기억이 있다. 그때 당시에는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독도가 왜 중요한지 알 턱이 없었으나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이라는 사실 정도는 오랫동안 기억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독도가 나에게는 매우 특별한 공간으로 느껴졌다.</p> <p>이번 대회를 통해 노래나 학교에서 배우는 단편적 지식을 벗어나 독도에 대한 지식과 시야의 범위를 넓히고, 직접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며 독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진짜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매우 기뻐다. 친구들과 협력해 하나하나 알아가고 홍보 자료를 만들고 다른 친구들을 통해 성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더욱 뿌듯하였다. 홍보의 중요성을 이전보다 절실히 깨달았고 우리가 실천했고 제시한 홍보 방법들을 더욱 일반화, 구체화, 세계화하여 독도가 일본의 이기적인 입김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독도체험발표대회를 통해 느끼는 바가 많은 만큼 의미있고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활동이었다는 생각이 든다.</p>
이재혁	<p>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독도에 갔다. 하지만 파도가 높아, 내가 탄 배는 독도 주변을 연신 돌기만 하고 항구에 정박하지 못했다. 그때 독도의 흙을 직접 밟지 못한 것은 지금까지도 나에게 진한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독도와 동해를 수호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하면서 그때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다. 활동 하나하나가 재미있었고, 나에게 매우 큰 만족감과 뿌듯함을 주었다. 대회의 결과를 떠나, 우리 동아리의 활동이 동해와 독도를 지키는 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뜻깊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동북아역사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찾아온다면 주저하지 않고 다시 참여할 것이다.</p>